

따로 또 같이... 행복의 합창



'모노(MONO) 앙주'

무반주 합창 아카펠라 동호회



아카펠라 동호회 '모노 광주' 회원들이 연습을 마치고 익살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장문익, 문민희, 정연숙, 최연준, 김용국, 김승우, 조상우(앞은이) 씨.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싱그런 잎사귀 돌아난 가시처럼 어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지난달 31일 북구 용봉동 전남대앞 그린비 세미나실. 악기 없이 순수한 목소리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아카펠라 동호회 '모노(MONO) 앙주' 회원들이 모여 가요 '장미'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모노'는 '모두 모여 노래하자'의 약자이다.

현재 회원들은 25명. 이날은 마침 10월의 마지막 날이어서 지 다른 때보다 적은 7명이 모였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 2시간 가량 세미나실을 빌려 연습을 한다.

장문익(31) 음악감독이 노래 시작 전에 절대음을 찾기 위해 '피치 파이프'(Pitch pipe)를 불면 이에 맞춰 소프라노·알토·테너·바리톤·베이스·비트박스(보이스 퍼커션) 등 자신이 맡은 파트의 음정을 놓게 된다. 악기가 없음에도 '사람 목

소프라노·알토·테너·바리톤·비트 박스...

25명 회원 매주 금요일 저녁 무반주 합창

충장로 축제·상무 지하철역 게릴라 콘서트

목소리로 만든 '행복·희망 바이러스' 선사

소리가 이렇게도 아름다울까' 싶을 정도로 감미롭고, 조화롭고, 매혹적이다.

노트북에 저장된 NWC(Note Worthy Composer) 악보를 벽면에 투영시켜 연습에 활용한다. 악보는 각 파트별로 구분돼 있다. 어지럽게 나열된 악보의 음표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낯설지만, 회원들에게는 소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이자 길잡이이다.

희망을 받고 있는 김용국(33)씨는 활동계기에 대해 "직장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힘든 시기를 노래를 통해 넘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라디오방송 리포터인 문민희(25)씨는 취재를 왔다 한눈에 반해 '지친 일상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

20~30대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동호회원들

의 공통분모는 '노래'이다. 학창시절 합창단 활동을 하는 등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

'모노 광주'의 창립은 2004년 9월경. 그러나 창립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던 동호회는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대학재학시 아카펠라 경험이 있었던 장문익씨가 합류해 음악감독을 맡으며 스페르타식 지도에 나서 기량이 향상 됐고 차츰 회원들도 늘어났다.

1주일에 한번 모여서 연습을 하자면 회원들은 자신이 맡은 파트를 틈틈이 연습해야 한다. 한 팀당 5~6명씩 3~4팀을 만들어 팀별로 연습을 주로 한다. 매주 모여 발성연습과 함께 노래 5~7곡을 반복해 연습하며 호흡을 맞춘다.

'아카펠라'(a cappella)는 '예배당 또는 성당식으로' '성당을 위하여'의 뜻. 원래는 16세기경의 교회용 합창곡의 무반주 양식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반주가 따르지 않는 합창곡을 의미한다.

현재 King's Singers(영국), Swingle Singers(유럽), Real Group(스웨덴)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국내에서도 '다이아(D.I.A)', 'Voiture', '아카시아' 등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해 3월 통영 국제음악회 공연을 시작으로 봄꽃바람회, 7080 충장로 축제, 상무 지하철역 게릴라 콘서트 등 20여 차례나 무대에 섰다. 또한 매년 8월에는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는 아카펠라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워크숍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아직 아카펠라 공연이 생소해 대중 호응도가 높은 가요 '장미', '찬찬찬', '어머나'를 비롯해 동요 '아빠 힘내세요' 등을 주 레퍼토리로 선보인다.

회원들은 무대공연 외에도 결혼식 축하, 칠순잔치 등도 출연요청이 들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아직 동호회 전용 연습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 앰프 등 동호회 전용 장비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중인 세미나실은 1인당 2시간에 4천원을 주고 빌려 사용하고 있다.

장문익씨는 아카펠라의 매력에 대해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하모니를 들으면 전율을 일으킨다"며 "사람의 목소리에서 만들어지는 화음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말했다.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모노 광주' 회원들의 새로운 무대를 기대해 본다. 동호회 카페(cafe.daum.net/KwangjuAcapella)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지난 7월 25일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모노 광주' 정기공연 모습.

CBS 와 함께하는 **孝사랑 · **뇌**개발**

광산구 유스호스텔 특별체험활동

● 무척추 · 초 · 초 · 고등 단계별로 학습하여 1박2일 또는 2박3일 코스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 무척추 단계 참가자는 박재영씨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인공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 상 황 : CBS사업국 TEL 062-979-8002
● 접 수 : 광산구 유스호스텔 TEL 062-943-4378 FAX 062-943-4379